

‘출구’ 난망... 北 반발로 긴장 고조될 듯

■ 한·미 2+2 회담 이후 6자회담·남북관계는

美 “2주내 패키지 제재조치... 北 돈줄 차단”

미국의 대북 압박 공세가 한층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수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리 의장선명 이후 주목받아온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조짐과 남북관계 개선시도 등 이른바 ‘출구전략’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언제, 어떻게 가시화되는냐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가진 서울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방침을 밝히지 않자 미 국무부는 몇시간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각종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내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

날 정레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확산(차단)에 집중해 왔다. 이제는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무부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수개월간 연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일내에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북한의 뚜렷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유명한 외교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소위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 태도는 미국 국내문제와 연관돼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비확산과 관련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북핵과 크게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미가 전안함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동해

와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진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5·24조치에 따라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도 냉기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5월24일 발표한 대북조치를 계속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조치를 흔들림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방침에 대해 북측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 이후 ‘전쟁 불사’, ‘서울 불바다’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측이 이번에도 말을 통한 긴장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카불 국제회의가 끝난 후 단체 사진을 찍고자 아프간 카불 외무부 청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왼쪽)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협의

柳외교, 日과 양자회담 등 분주

오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개막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22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PMC)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외교장관들이 참석, 지난해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문제를 협의했다.

아울러 경제통상 및 개발 협력, 한-아세안 사이버 대학 설립, 한-아세안 간 산림협력기구 추진 등 양자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화상대 10개국, 그리고 북한과 몽골 등 27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제17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며 이날 저녁 의장국 베트남 외교장관이 주관하는 공식만찬이 진행된다.

이번 ARF에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일 예



박의준 북한 외무상이 22일 베트남 하노이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 장소를 나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리무진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이어서 주목된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박의준 북한 외무상은 이미 현지에서 도착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오후 도착한다.

가장 먼저 현지에서 도착한 양 부장은 전날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데 이어 이날도 활발한 양자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에 북한의 박 외무상과 만난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이 결의된 상황에서 북측 양국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박 외무상과의 협의를 마친 양 부장은 이날 오후 또는 23일 오전 중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유 장관과 전날 도착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일본 등과 양자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美 “천안함 공격 어뢰 北 개천사에서 제조”

미국 정보 당국이 지난달 중순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2년 전 북한 개천사에서 제조됐다는 정보를 한국과 일본 등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북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측은 독자적인 정보망이나 북한 내부의 비밀 자료 분석에 근거해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추진동력 부분이 평양 북쪽에 있는 평안남도 개천사의 ‘1·18(1월18일)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1·18 공장’은 탄도 미사일의 엔진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또 북한이 2008년 남미 국가에 어뢰의 탄두를 제외한 추진동력 부분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어뢰 공격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같은 부품, 형태의 어뢰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군표·김종률 등 553명 이달말 가석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제청장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이 이달 말 가석방될 전망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지난 19일 전 전청장과 김 전 의원을 포함한 553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가석방을 승인하면 이달 말일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은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매달 말일 실시된다.

전 전청장과 함께 정삼근 전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전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40분 차이로...

반기문 총장 비행기 연착...아프간 반군 공격 모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일행이 자칭 아프가니스탄 반군의 공격을 받은 뻔한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차 현지로 찾은 반 총장 일행의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 당초 도착 예정 시간보다 40분 가량 늦는 바람에 반군의 로켓포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반 총장의 한 측근이 이날 이메일을 통해 알려진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반 총장 일행이 탄 유엔 전용기는 20일 저녁 연료 공급을 받기 위해 조지아(러시아어로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에 일시 착륙했다가 비행기 조종석 앞유리 부분의 균열이 발견돼 지체하게 됐다.

다행히 조지아로부터 여분의 항공기를 제공받아 당초 예정보다 40분

늦게 트빌리시를 출발한 반 총장 일행의 비행기는 카불 국제공항에 도착하려 했지만, 관제탑에서 “30분전 활주로가 반군의 공격을 받았고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륙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공중을 4~5바퀴 선회하다가 인근 바그람 공군기지로 향로를 변경해 비상착륙했다.

반 총장은 기지에서 카르자이 대통령령까지 호위해줄 미군을 2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이들과 함께 대통령궁에 21일 새벽 4시 30분께 도착해 1시간 30분 가량 뒤 곧바로 카르자이 대통령령과의 조찬 회담에 참석했다고 한다. 반 총장을 수행한 이 측근은 “만일 유엔 전용기가 고장 나지 않았더라면 반 총장은 정확히 반군들의 공격 목표가 됐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간발의 차(by a hair's breadth)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222-0527

330명 / 층

물도 사무실, 판매시설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222-0527

북구 경서동 1가 20-3